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포용의 도시’ 순천 행복한 다문화 사회



순천시는 나눔과 배려를 통한 포용의 도시 새로운 순천을 만들어가고 있다.

‘포용의 도시’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와 연결돼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란 장애인, 다문화 가정, 어르신 등 누구나 편한 사람 중심의 도시이다.

순천시에는 1263세대의 다문화 가정이 이웃해 살고 있다. 시는 다문화 가정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 결혼 이주여성 조기 정착과 일자리 지원

순천시는 결혼 이주여성들의 조기 정착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원해 이주여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외국인 주부 터전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기초 외국어 교육 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 13개소에서 외국어 교육을 위한 ‘모국어 아카데미 토크 선생님’도 운영해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이주여성 10명을 채용해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160개소에 이주여성의 모국 문화와 의상 체험, 놀이 소개, 음식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지역아동센터에 ‘모국어 아카데미 토크 선생님’도 운영해 새로운 일지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주여성 자립 지원 외국인 주부 터전마련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대상 부모역할 코칭·집단상담 등 서비스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번역서비스,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결혼 이주여성들의 입국 초기 가족생활, 국가 간 문화차이와 언어불통으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번역 서비스와 수준별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결혼 이주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결혼이민자 건강테스트, 산모도우미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운영중이다.

무엇보다 결혼 이주여성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힘쓰고 있다. 각종 자격, 기술 취득 비용을 지

외에도 출산한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결혼이민여성을 파견하는 산모도우미 사업과 취업준비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다문화가정 자녀 돌봄 지원

시는 이중 언어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돌봄 지원 사업도 추진중이다.

가정을 찾아가 한국의 말과 글에 익숙하지 않은 엄마들을 도와주는 ‘자녀 책임어주기 사업’, ‘다문화가정 아동적응 지원 서비스’ 등 양육에 필요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부모역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찾아 부모역할 코칭, 집단상담을 통해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과 안정적인 가정 분위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앞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과 연계 등을 통해 다문화 교육의 공백대 형성을 위한 교육 지원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 건강하고 행복한 다문화 가정 분위기 조성

순천시는 다문화가정 내 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7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통해 가정폭력 예방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그동안 순천시에서는 취약 위기가족의 가족관계 향상 위해 임신, 출산, 영유아기,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부모지원, 예비 아버지들을 위한 아버지 대상 교육과 자조모임 등 아버지 역할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주여성 상담 및 가정·성폭력 등 관련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피해자와 가정·성폭력 등 시설을 신속하게 연계해 보호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순천시는 다문화가정은 지역이 함께 들한다는 개념을 도입해 지난 6월 순천시와 순천대학교, 순천중앙교회와 협업해 다문화가족 교육·소통 공간인 ‘다가온’을 개소했다.

‘다가온’에서는 결혼 이주여성의 자조활동과 사회적응, 자녀양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름을 이해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립 역량강화와 돌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성군 “우리주변 어려운 이웃 찾아주세요”

캠페인 전개…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기간 운영

보성군은 17일 녹차골보성향토시장에서 “찾고 보고! 알리고!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세요!” 하절기 폭염 속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보성군사회복지협의회보성읍희망드림협의회, 보성행복지킴이단,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하여 홍보활동에 힘을 보탰으며, 향토시장을 찾은 군민들에게 발굴홍보를 위한 리플릿과 홍보물, 쿨스카프 등을 배부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복지위기 가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소외된 이웃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든든한 보성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주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129 콜센터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오는 8월 말까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읍면 복지담당공무원의 찾아가는 방문상담 강화, 희망드림협의회, 보성행복지킴이단, 복지기동대 등 인적안전망 활용, 민관협력을 통한 발굴·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보성=안구일 기자



광주 동부소방서, 피난약자 맞춤형 화재안전체험 교육

화재 등 유사시 시설 이용 장애인 및 종사자 대응능력 제고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양영규)는 17일 오전 복구에 소재한 푸른하늘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방문하여 이용 장애인 및 종사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화재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화재발생 시 119신고요령 및 신속한 대피방법 안내, 폭염 시 작업 행동요령과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소화기 사용법 등을 실시했다.

동부소방서 교육담당자는 “피난약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재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했다”며 “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야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